

# DBpia

## 童話素材 開發을 위한 探索

- 「三國遺事」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中心으로

---

저자  
(Authors) 鄭善惠

출처  
(Source) [아동문학평론 22\(4\)](#), 1997.12, 45-64 (20 pages)  
[Criticism of Korea Children's Literature 22\(4\)](#), 1997.12, 45-64 (20 pages)

발행처  
(Publisher) [아동문학평론사](#)  
THE SOCIETY FOR KOREAN CHILDREN'S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84103>

APA Style 鄭善惠 (1997). 童話素材 開發을 위한 探索. 아동문학평론, 22(4), 45-6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8 09:5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童話素材 開發을 위한 探索

—『三國遺事』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中心으로—

鄭 善 惠

## 1. 글머리

생애에 2500여 편의 서정시를 썼으며 독일을 명령하던 詩聖 괴테의 말이다.

“내가 인생의 불변법칙을 배우게 된 것은 시프라우스 대학에서 가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듣던 옛날이야기에서였다.”<sup>1)</sup>

앞의 말은 어린 시절 들은 옛날이야기가 인생을 설계하는 기둥이 되었으며 삶의 지표가 되었다는 말이다.

전 시대의 문화유산인 설화를 오늘에 와서 다시금 논의하려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숨결을 내일의 아동문학 속에 이어 보자는 데 있다.

그 중에서도 현존하는 기록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많은 설화와 전설이 풍부히 수록되어 ‘설화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1) 손동인, 『한국전래동화연구』, 정음문화사, 1984, p. 1.

『삼국유사』에 대한 童話素材로서의 연구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단국으로서 깊어진 남북의 골을 때워 주는 것은 새롭게 다음 세대를 이어 갈 어린이에게 한 뿌리임을 확인하게 하는 작업——반만년 동안 내려온 우리 이야기를 다투어 읽게 하는 일이다.

반세기에 걸친 긴 세월의 공백——언어, 생활정서, 행동양식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적절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설화 속에는 和解와 共存과 人本主義 정신이 오랜 세월 동안 융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권2紀異「사십팔 경문왕」조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미 기원전 희랍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고, 세계 도처에 전승자료 예가 보고되고 있고, 동일 설화권인 한·중·일 3국 중 유일하게 채록되었다는 점, 그 연대가 적어도 13세기 말까지 소급할 수 있고 역사상의 특정인물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국정 교과인 「읽기」(2-1)에도 수록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궁극적으로 설화가 가지고 있는 意味가 무엇인가 밝혀봄으로써 빈약한 오늘날 한국동화의 소재를 보다 풍성히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 2. 『三國遺事』와 경문왕 설화의 意味

### 1) 『三國遺事』의 共通意識

문학의 내용은 사상, 곧 감동적인 思想(affecting thought)이다.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how)라는 표현기교보다는 무엇(what)이라는 면을 강조한다고 본다.

어제의 인간은 어떠했으며 오늘에 와서 그 의미는 무엇인가?

또 내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고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참다운 문학의 존재가치가 있고 위대한 인간의 작업으로서의 永續性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sup>2)</sup>

그렇다면 『삼국유사』 설화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劃一的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는 모두가 相異한 시대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개인의 창작도, 동시 발생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세 경우로 想定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사실의 記錄이나 혹은 그를 바탕으로 한 일부 첨가, 變改.

둘째, 허구적 창작.

셋째, 민간 전승으로부터의 차용.<sup>3)</sup>

각개 설화의 최초 성립시점에는 匿名의 작자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 다수의 작자 중 한 사람이 一然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僧 일연은 대체로 구전·문헌·관찰 들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기록자였지, 그 자신이 虛構的 창작자가 아니었음은 既往의 여러 논증 자료들이 밝힌 바 있다.<sup>4)</sup>

가장 보편적인 것은 셋째로 전래적인 민간설화를 借用함으로 형성되었으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추론의 근거가 되는 민간설화들이 문헌과 구전자료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2) 이재철, 「민족주의와 한국아동문학의 전통성」, 《한국아동문학연구》 제 5호, 한국아동문학학회, 1996, p. 109.
- 3) 이기백, 「삼국유사의 문학사적 의의」, 《진단학보》 36, 1973, pp. 162~165.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의식에 대하여」, 《경희학보》 5, 1974, pp. 77~96.
- 4)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증보개정판, 일조각, 1983년 발행, 1996년 개정, p. 211. 「삼국유사」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명백한 문헌 인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다. ‘…鄉傳云…/按古傳…/古傳云…/古老云…? 諺傳…/諺云…/俚諺….’ 이들 중에는 구비전승이 아닌 문헌 기록을 가리키는 것도 있으리라 보지만 대체로 민간 구비 전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삼국유사』 전편에 흐르고 있는 공통의식을 찾아본다면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다고 본다.

- ① 佛國土思想.
- ② 강렬한 庶民의 生活意識.
- ③ 민족사의 自主性和 그 문화의 優位性 강조.
- ④ 神異力에 대한 새로운 인식.<sup>5)</sup>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일연의 編纂意識에서 말미암은 것이겠지만, 좀더 근원적으로 살펴본다면 同書 소재 설화들의 原作者 내지는 소유자들의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주된 形成 要因은 일반 民衆이나 貴族, 僧侶들의 간절한 希願으로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분단국으로 아동문학이 취해야 할 방향은 ‘혈연적인 공동성’을 基底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민족의식을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민족주의란 ‘어떤 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여 추진하는 이데올로기 및 운동이다.’<sup>6)</sup>

그간의 한국 민족주의의 변천은 ‘民族史’와 ‘王權史’와의 괴리에서 빚어졌다고 본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경문왕 설화’는 좋은 본보기라고 보여진다.

支配者 중심의 역사에서 그 민중이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抵抗意識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임진왜란의 의병이나 동학혁명의 민중봉기, 庚戌國恥 후의 독립운동의 전개나 식민지 정치에 대한 민족적 저항운동은 그 맥락을 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강대국에 의한 남북분단이나 외세에 눌린 조국

5) 김대영, 前揭書, pp. 87~94.

6) 자족적 민족주의 : 민족을 기초로 국가를 조직하여 대내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외적으로 타민족의 자유까지도 인정하는 태도이다.

확장적 민족주의 : 경쟁적 민족에 대하여서는 자기의 우월성을 맹신하고 약소민족에 대하여서는 그를 지배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이다.

의 정치현실, 6·25의 동족상잔, 爲政者의 長期執權에 대한 저항 등으로 그 命脈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의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내부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압력에 의한 저항이 아니라 저항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화합, 대화, 발길’이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것에 대한 深度 깊은 考察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작업만이 강대국에 대한 무의미한 열등감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바람직한 민족의 앞날을 예비하리라고 본다.

## 2) 경문왕 설화의 類型과 모티프

경문왕 설화는 神異譚 중의 超人譚에 속하는 유형으로 변신담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초인담으로 분류한다. 그 특징적 내용이 凡人과 다른 주인공의 外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유형의 최고본인 로마의 시인 오비드(L. NAME Publius Naso)의 「변신(Metamorphoses)」의 예를 좇아 변신담으로도 볼 수 있다)

스티스 톰슨의 『설화의 유형』에 의하면 782번 ‘미더스와 당나귀 귀; Midas and Ass’s Ears’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요 모티프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Modif-Index<sup>7)</sup>

경문왕 설화(삼국유사)

- \* 이발사가 알게 된 비밀의 신체적 특징……복두장이만이 알게 된 당나귀 귀
- \* 임금의 괴기스런 귀를 본 이발사로 인해 온 세상이 그 비밀을 알게 됨……복두장이가 그 비밀을 말하지 못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 대밭에 들어가 외침.

7) 조희웅, 前揭書, p. 329.

- \* 나무로 만든 피리가 비밀을 폭로하다.....바람이 불면 ‘~’고 대나무가 외침.
- \* 악기로의 부활 : 피살자의 뼈나 무덤에서.....산수유를 심었으나 여전히 ‘~’들려 왔다.....생긴 나무로 만든 악기가 범죄행위를 폭로시키다.

### 3) 研究狀況

미더스 왕이 당나귀 귀를 가졌다는 시사를 비로소 보여 주고 있는 것은 희랍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플루투스(Plutus; 287)이다. 이 설화를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시인 오비드의 「변신」이다.<sup>8)</sup> 이 설화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고찰은 W. Crooke(1911)의 服裝史적인 해석으로 소아시아 반도 및 미케네 문화에 속했던 지역의 만연했던 祭儀와 연관하여 추론하였다. 즉 제정일치적 군주가 神과의 교류를 상징하기 위하여 聖獸의 가죽옷을 입었고, 이 짐승 모양의 사체에 의한 의식이 이 설화의 기원이라는 가정이다.

설화연구의 일반적 과정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각 이본의 분포 상황, 변형양상으로 시작되어 그 의미분석으로 나아갔다. 국내 학자들이 논한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최남선(1929);경문왕 설화와 유사한 이야기로 희랍 신화 소개하여 전파설 주장.
- ② 백낙준(1938);고대 프러시아의 임금 미더스가 고르디우스와 퀴벨레의 소생이라는 전설 및 오비드의 기록 간략히 소개.
- ③ 최남선(1938);『삼국유사』, 「변신」, 나일 강변의 민담 「알

8) 오비드는 버어질(70~19 B.C.)과 동시대인으로 초기에 시작에 종사하다가 50세에 시저를 저축하여 후세의 소유으로 추방, 슬픔 속에 창작을 계속. 저작 중 중요한 것이 「변신(Metamorphoses)」인데, 개중엔 변신담이 아닌 것도 있다.

렉산더 대왕의 귀 이야기」, 아일랜드의 라브라(로라) 왕의 말귀 이야기 소개하고, 일본 고전인 「大鏡」의 구절을 들어 일본에도 同流의 설화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논하였다.

④ 홍명희(1946);희랍 신화의 유입 가능설을 논하고 그 전과 경로로 인도 해로나 중국 경유설을 추정.

⑤ 이관일(1966);유사설화로 희랍의 미더스와 몽고의 驪耳說話의 내용 소개하고 그리스, 세르비아, 웨일즈, 아일랜드, 브리타뉴에 전승되었음을 언급하여 지역적 교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경문왕의 당나귀 귀는 ‘민중의 정당한 호소를 들을 만한 龍德이 가리워진 때’ 정상적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어리석은 동물의 대표인 나귀의) 귀를 상징하고, 결국 이 설화가 지니고 있는 내면적 의미는 言語를 막은 경문왕의 정치를 비판하고 인간의 억압된 감정을 발산해야 하는 ‘카타르시스’라고 해석하였다.

⑥ 장덕순(1970);방기환의 소설 「귀」를 들어 논하였다.

⑦ 김현룡(1984);국왕 경계의 풍자설화로 전제하고 경문왕조 전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웅림이 현안왕에게 세 가지 美事를 진언한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와 부호들의 사치낭비를 뼈저리게 느끼고 왕이 때때로 異事를 들려 달라는 기회를 얻어 풍자적인 표현으로 이와 같이 꾸며 진언한 것.’이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여 선정을 베풀지 못한 것을 이 설화가 암시해 주고 있다.

둘째, 경문왕의 귀가 보통 사람보다 좀 컸을 가능성을 지적, 왕정에 의하여 억압된 민중의 감정을 복두장이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셋째, 왕이 된 후 그의 침전에 항상 뱀이 침상을 둘러싸고 있  
9) 방기환, 《문학예술》 1957년 11월호 발표,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 대학 출판부, 1970, pp. 267~269.

있으며 뱀들이 혀를 내밀고 왕의 가슴을 덮고 있어야만 편히 잔 것은 邪靈이 항상 그의 몸을 가리어 격리되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⑧ 김기현(1988);이제하의 단편소설 「임금님의 귀」 소개.

그리하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나타나는 여러 단어에 포함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경문왕 설화의 숨겨진 뜻을 찾아 보고자 한다.

### 3. 그 象徵性 考察

고대의 신화, 偶話에서 중세의 설화를 거쳐 근세에 메크헨에 이르기까지 민족문학으로 정착된 전승문학이라는 한 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째, 인간 정신의 기본유형을 명백하게 나타내 준다.

둘째, 환상과 상징적 방법으로 집단 무의식의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그 내용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內在되어 있는 異質성을 지니고 있다.

Fred(1913~1918)는 민족의 신화, 전설 등 동화의 모체가 되는 설화의 내용을 꿈보다 훨씬 완전한 무의식의 표현형태라고 보고 있으며, Jung(1968)은 개인의 의식적 체계와는 무관한 또 하나의 무의식 세계를 설정하고 이것이 오랜 세대에 걸쳐 반복된 경험체계인 아키타입(Archetype; 원형)에 의하여 구성된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고 집단 무의식 내의 이러한 아키타입이 동화의 모티프가 된다고 보았다.

「사십팔 경문왕」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화로 구성되어 있다.<sup>10)</sup>

① 難問 賢答說話(三善三美)

- a. 신라 47대 헌안왕이 膺簾을 불러 ‘국선이 되어 사방으로 다니면서 무슨 異事를 보았는가?’ 물었다.
- b. 응림이 ‘선행자 셋을 보았는데, 첫째는 남의 윗사람이 되어 겸양하여 밑자리에 앉는 이를 본 것. 둘째, 부자로되 검소한 옷차림을 한 것. 셋째, 존귀하되 그 위엄을 쓰지 않는 이를 본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대답함.
- c. 이에 헌안왕이 응림의 어짐을 보고 두 딸 중 한 딸을 下嫁시키려 하였다.
- d. 응림은 부모의 권유로 미모의 둘째를 택하려 하다, 만공주에게 장가를 들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範教師<sup>10)</sup>의 말을 좇았다.
- e. 헌안왕이 죽자 응림이 뒤를 이어 즉위하게 된다.
- f. 왕이 둘째 공주도 취하게 되었다.
- g. 범교사가 왕에게 말하기를, 만공주를 얻었기에 왕위에 오른 것, 미모의 둘째까지 얻게 된 것, 선왕과 그 왕비가 기뻐한 것이 세 가지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② 異常人說話(뱀과 함께 사는 왕)

- a. 경문왕의 침전에 매일 많은 뱀이 모여듦.
- b. 나인들이 놀라 쫓으려 하였으나 왕은 ‘뱀이 없으면 安眠할 수 없다’고 만류하였다.
- c. 언제나 혀를 내밀어 온 가슴을 덮고 잤다.

10) 조희용, 前揭書, pp 340~341.

11) 조희용, 前揭書, p. 341. 어떤 국역본에는 ‘모범사’의 뜻으로 있으나 이는 ‘범교라는 대사’의 뜻으로 그냥 범교사가 옳을까 한다. 『삼국사기』에서는 막연히 ‘홍륜사의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 대목의 기록이 『삼국유사』보다 장황하다. 『신라본기 제11 헌안왕 4년』조와 『동 경문왕 3년』조에 분재되어 있음.

③ 異常人說話(당나귀 귀의 임금님)

- a. 갑자기 귀가 길어져 당나귀같이 되었다.
- b. 왕후와 나인들도 몰랐으나 복두장이만은 알고 있었다.
- c. 복두장이가 그 비밀을 발하지 못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 대 나무발에 들어가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와 같다’고 외쳤다.
- d. 그 후 바람만 불면 대나무가 ‘우리~♪♪’고 외쳤다.
- e. 임금님이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를 심었으나 여전히 바람이 불면 ‘~♪♪♪♪’는 소리가 들려 왔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후사가 없었던 현안왕이 그를 사위로 삼아 單位하였던 것이다. 이는 민간설화에서 전하는 이른바 ‘지혜로 사위삼기’[擇壻說話] 유형과 ‘금지’ 유형의 한 예이다. 그런데 왜 귀가 길어졌을까? 뱀과 자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이야기거리로 그치기에는 내면적으로 아키타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싶다. 그리하여 앞에 줄친 단어의 상징성을 다음과 같이 표로 만들어 정리하여 보았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나타나는 단어의 상징적 의미<sup>12)</sup>

1	셋	3의 법칙;3분적 세계관에 기인한 것으로 둥근 하늘을 뜻함. 조화나 균형, 갈등의 해소, 충족함을 의미하며 특히 探索 (quest)을 지닌 이야기에 흔히 나타남. 인물이나 사물의 최대치이다.	충족함
---	---	--	-----

1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J. E. Cirot A Dictionary of Symbols(London;Routledge Kegan Poul, 1962) 『세계대백과사전』, 학원출판공사, 1996.

2	뱀	에너지 자체, 원초성, 풍요, 생명의 샘, 보물의 파수꾼, 수호자, 富 자체, 영원, 不死, 운회, 부패, 분열, 재생, 치료의 상징(그 자세나 허물벗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성질 때문에), 저승, 지하와 관련된 동물, 유혹자, 관능, 악의 본능을 상징, 반음반양, 지혜의 보유자이자 공포의 대상물.	도덕적 이중성, 양면성, 내적 힘의 이미지.
3	당나귀	행세하는 사람(유생)들의 교통수단, 변태성욕의 대상(호색한들의 변태성욕의 대상이었음), 못됨, 귀머거리(당나귀가 우는 것을 귀머거리가 하품한다고 생각), 유창함(글 읽을 때 유창하게 읽어 내려감을 ‘당나귀 찬 물 건너가듯 한다’ 고함), 껌보(당나귀가 늙으면 껌만 남는다), 술꾼(당나귀 주막 지나듯 한다), 심술쟁이(여물을 다 먹으면 밥통을 차 없어 버리는 못된 버릇이 있다).	귀머거리, 변태성욕자, 술꾼, 심술쟁이.
4	귀	급소, 생명이 호흡하는 곳(모양이 조개 같아 잉태와 탄생을 의미), 양 귀는 2개의 통로로 생명을 없애는 급소로 이용, 인간의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매체로 큰 귀는 영웅, 호걸, 귀인, 왕자, 신의 선물로 지혜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예지력, 시상, 아이디어, 영감, 운명을 상징하나 어릿광대의 두건 속의 귀는 오관, 우둔을 상징함. 게르만족은 하찮은 것을 가리킨다(노예, 가벼운 죄는 귀를 자르는 것에서 유래).	오관, 우둔을 의미-원래는 영웅이었으나...
5	대나무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구하기 쉽고 가공 용이한 까닭에 건축재, 농구, 어구, 악기, 완구, 문방구 등 온갖 방면에 이용, 초상 때의 喪章, 무당의 신장대로도 쓰이는 것은 겨울에도 푸르고 곧은 모습을 인간의 절개와 비유.	올바른 절개

6	구멍	움물의 형태는 구멍이다. 단군 임금의 어머니가 ‘고마’로 바로 물의 신이며 어두운 공간을 떠돌며 신비의 생명력을 복돋우는 地母神이다. 우리 생활의 오랜 주생활인 굴살이었음을 돌이켜볼 때 낮은 공간으로 움(단군)모음이 바뀌어 엄+이>어미>어머니(엄)이 되었다고 봄.	어머니;모성-민중을 상징한다고 봄.
7	바람	신이나 정령의 초자연적 존재, 그 기능, 속성으로 여겨짐. 영혼의 활동과 결부. 방위 강약이 생활과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임.	초자연적 존재
8	피리	기본적 의미는 애욕의 고뇌나 죽음, 강한 호소, 지팡이, 물과 관계됨. 형태는 남근을 암시하나 어조는 내적인 여성으로 직관적 감정과 관계됨.	고뇌, 호소

경문왕 설화에는 구멍이나 피리가 보이지 않으나, 민담이나 외국(예;프랑스 민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중략)

“저는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꼭 죽을 것 같아요.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sup>13)</sup>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소년아, 깊은 외딴 산 속으로 찾아 들어가거라. 그리고 한길만큼 땅을 판 후 그 속에 들어가서 비밀을 실컷 말하여라. 그런 후에 그 웅덩이를 도로 묻어 두면 땅이 네가 말한 비밀을 지켜 줄 것이다.”

……그런데 소년 이발사가 땅을 팠던 자리에 한 그루 대나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양치기가 그 곳을 지나가다가 곧게 자란 대나무를 잘

13) 『세계민화선집 5』 프랑스편, 보이스사, 1981, pp 225~232

라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피리를 입에 대고 부니까……(중략) 왕자는 소년 이발사를 살려 주고 싶었습니다.

“나의 귀가 당나귀 귀면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이 하고픈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귀를 보십시오!” 하고 왕자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 보는데 두 귀가 작아지더니 여느 사람의 귀처럼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자의 덕망을 칭찬했습니다. 소년 이발사는 그 후 궁궐 이발사가 되어 일생 동안 왕자의 머리를 깎아 주었습니다.

양치기의 피리는 어떻게 되었냐구요? 그 다음부터는 ‘왕자님의 두 귀는~’ 소리는 똑 그치고 그 대신 구슬이 굴리는 듯한 아름다운 가락이 울려 나왔답니다…….

또한 의학백과대사전을 찾아보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물어 본 바 실제로 ‘拒耳’라 하여 기형학적으로 큰 귀가 있어 종종 외과적 수술로 성형을 한다고 하고, 역사적으로도 대다수의 통치자들의 귀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실제로 컸던 것은 사실이다.<sup>14)</sup>

그러므로 본인이 여러 단어의 상징성을 『삼국유사』의 역사적 사건들(찾은 지진, 기근, 유행병, 모반, 빈번한 토목공사, 개조공사)을 참조하고 시대적 상황을 볼 때, 화랑으로서의 영민했던 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왕으로 아마도 도덕적 이중성을 가지고 아랫사람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그를 ‘당나귀 귀의 임금’으로 변모시켰다고 보는 바이다. 더욱이 구약의 야곱이 자기가 바라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수년을 고생하였던 것처럼 첫째 공주와 결혼은 하였으나 그 접근을 막기 위하여 뱀이란 소도구를 사용하였지 않았던가고 생각하며, 그 벌로

14) 『현대가정의학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90, p. 1108

하늘이 내린 당나귀 귀를 가리고 살아야 했지 않은가 하고 이해하는 아동도 다수가 있었다(본인의 딸과 학생들).

그러나 초자연적 존재인 바람과 어머니를 상징하며 늘 감싸 주는 존재인 구멍이 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왜 하필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밭이란 말인가!

흔한 소나무도 아니고 갈대밭도 아닌,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무어라 속삭이는 대나무와 산수유가 등장한다. 산수유 역시 약용 열매가 달리는 흔한 나무로 서민들에게 친근한 존재이다.<sup>15)</sup> 그리하여 이야기는 처음에 3이란 숫자가 암시하듯이 민중의 승리—— 보이지 않는 함성, 소리나지 않는 깃발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 4. 內容分析

설화의 내용은 주로 탄생의 사건과 가족간의 갈등, 사회적 성숙, 결혼,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이란 비슷한 시작과 끝으로 연속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동화의 중요한 모티프가 된다.

이와 같은 통과의례(Initiation)의 과정을 격리의식(Rites of incoportion), 변화의식(Rites of transion), 통합의식(Rites of incopoation)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15) 『세계대백과사전』, 학원출판공사, 1996, p. 453.

16) A. V. Gemp, 1908. 김경중, 「전래동화의 현대적 수용방안」, 《한국아동문학연구》 제4호, 한국아동문학학회, 1995, p. 39.

격리의식	변화의식	통합의식
지금까지 지속한 기존 상태로부터 상징적으 로 분리 <기본 과제> 무지 불완전한 자아 회의적 자아 <내용> 무지, 부주의로 인한 사건유발	<기본 문제> 악의 발견과 생의 인식 상징적 고난과 죽음의 체험  <내용> 위협적 존재와 대결 타인과의 갈등 자신과의 내적 갈등	<기본 과제> 성숙한 자아의 확립 성숙한 세계 취득 <내용> 문제의 해결 소원성취, 행복 재물, 결혼 벼슬 몸의 변신, 재생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 ‘해님 달님’ 두 설화를 참고로 도식화해 보면, 대부분 탄생과 갈등으로 시작하여 각고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전형적인 通過意識의 과정을 보인다.

● ‘콩쥐 팥쥐’

분리과정	변화과정	통합과정
계모의 출현 가난의 발생 계모와 형제로부터 학대와 멸시	학대의 절정 불가사의한 고난의 체험 극적인 잔치에 참가 신발을 잃어버린 채 귀가	소원성취 행복과 결혼 인과응보의 귀결

● ‘해님 달님’

분리과정	변화과정	통합과정
홀어머니와 두 남매 어머니, 오누이를 두고 일하러 감 밤 늦은 어머니의 귀가 호랑이 잡아 먹음	어머니 흉내를 낸 호랑이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 나는 과정 호랑이와 위협한 대결	하늘의 도움 남매의 구원 호랑이 패배 해와 달이 되는 오누이

그러나 모든 설화가 다 똑같은 통과 의식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의 모든 동화류는 기본적으로 작품의 내용이 심리적, 정신적 종속관계에서 분리되어 변화의 과정을 거쳐 보다 성숙한 자아와 자신을 실현하는 심리적인 통과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동화는 선악의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닌 등장인물에 의하여 야기되는 갈등과 갈등해소의 극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아동들은 동일시 대상이 되는 매력적인 선한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이중적이거나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한 또 다른 주인공과 함께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여 심리적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sup>17)</sup>

위의 도식에 의거하여 경문왕 설화를 도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분리과정	변화과정	통합과정
다른 화랑과 구별되어 국선에 오름 임금께 헌답으로 부마로 뽑힘 맘에 없는 첫째공주와 결혼하여 뱀을 도구로 왕비, 나인과 분리됨	귀가 길어짐. 뱀과 자야만 숙면을 취함. 복두장이와의 갈등(금지)	복두장이 건디다 못해 대숲에 발설, 바람이 불어 비밀이 폭로됨. 산수유도 마찬가지로; 금지의 해제

한편 우리의 고전설화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17) 김경중, 前掲書, p 38 참조

교재의 내용은 원래의 이야기와는 약간 달리 改作이 되어 있다. ‘경문왕의 귀 전설’을 보면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만큼 크다는 사실을 아는 복두장이가 혼자만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지내다가 병이 나서 결국 道林寺라는 절 뒤쪽에 있는 대밭에 가서 평생을 단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란 그 말을 속 시원하게 말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죽었다고 되어 있으나, 교재에는 신하가 대나무 숲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나니 병이 나았다고 되어 있다.

더욱 차이가 나는 것은, 교재에 임금님 귀가 커진 것은 백성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귀가 크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귀담아들을 수 있다는 농부의 말을 듣고, 임금님이 크게 기뻐하며 감추었던 귀를 내놓고, 농부에게 상을 내리고, 병도 나았으며, 그 뒤 백성들의 말을 더욱 귀담아듣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다는 결말 부분이다.

교과서의 동화작품(문학교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改作을 했겠지만, 人爲的인 要素가 강하다고 생각된다.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났을 때, 그 신하(복두장이)는 큰 벌을 받게 되고, 아침하는 것 같은 농부의 말을 임금님이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더욱 리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 임금의 행동을 더욱 美化하여 결국, 귀 큰 사람은 큰 인물, 즉 귀 큰 임금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다는 결말의 개작은 원전의 매력을 크게 살리지 못했으며, 특정인물에 대한 美化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리얼리즘적 要素는 복두장이의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속 시원하게 말 좀 하였으면…….’

신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병도 나았습니다.<sup>18)</sup>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든, 말을 하고자 하는 즉,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欲求가 있다. 따라서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같이 크다는 사실을 혼자만이 가슴 속에 간직하다가 결국 병이 들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속이 후련해지고 병이 낫는 복두장이를 통해서 인간의 表現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알려 주고 있다. 어떤 고민이 있다든지 자신의 身上에 관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의 고통은 누구나 한번쯤 겪어 보았을 것이다. 인간에게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각박한 삶이 될까?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이 이야기에는 인간의 강렬한 표현 욕구와, 그를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어떤 生活 현실을 비판하는 리얼리즘적 요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연령적으로 거의 비판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이처럼 원 설화가 가진 의미를 왜곡 전달시킨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폭군일 수도 있는 특정 군왕을 미화하기 위하여 전혀 없는 대목까지 삽입했다는 것은 ‘역사의 조작’이라는 비난까지도 면키 어려우므로, 설화의 현대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18) 문교부, 『국민학교 국어 읽기 2-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0, p. 47.

19) 崔常壽,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成文閣, 1985, pp. 105~107 참조.

## 5. 마무리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게재된 경문왕 설화를 중심으로 그 원전인 『삼국유사』가 주는 의미와 경문왕 설화의 국내 연구상황과 유형 및 모티프, 내재된 단어가 주는 상징성들을 고찰하여 보고 일반적 설화가 가지고 있는 통과례에 맞추어 그 내용의 본질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엄청난 변화의 격동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국경 없는 전쟁의 시대’라고 불리는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가 문을 닫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결코 막을 수가 없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시대의 行動樣式은 개인의 행동양식도 활동무대를 국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와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하여 우리 아동문학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후손에게 더 이상 분단국의 아픔을 주지 않으려면 민족의 同質性 회복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삼국유사』야말로 가장 좋은 동화의 모티프이며 소재이다. 더 이상 喪失되고 毀損되어 가는 우리의 정신적 유산을 위하여 실제 이상의 체형을 가진 경문왕 설화가 지닌 貴한 내용적 본질은 어떤 누구도 분리, 격리되는 고통과 함께 불완전한 자아가 생의 갈등과 고난을 겪어 변화되며 늘 위협적 요소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대결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성숙한 세계를 취득하게 된다는 가장 평범한 ‘順理’를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사족으로 달아 둘 것은 민족의 생활, 신앙, 사상, 정신이 담긴 寶庫인 『삼국유사』를 현대적으로 수용할 때 투철한 창작정신과 함께 고유한 전통성을 계승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고 본다. 그것만이 多文化의 流入으로 인한 가치관의 混亂 속에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본다. ♣

[참고 문헌]

1. 이상섭, 『문학연구의 방법』, 탐구당, 1992
2. 김경중, 「전래동화의 현대적 수용방안」, 《한국아동문학연구》 제4호, 한국아동문학학회, 1995
3.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증보개정판, 일조각, 1983년 발행, 1996년 개정
4. 손동인, 『한국전래동화연구』, 정음문화사, 1984
5. 이재철, 「민족주의와 한국아동문학의 전통성」, 《한국아동문학연구》 제5호, 한국아동문학학회, 1996
6. 조희웅, 『설화학요강』, 새문사, 1989
7.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8. 『세계대백과사전』, 학원출판공사, 1996
9. 『세계민화선집 5』, 보이스사, 1981
10. 『현대가정의학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90
11. 문교부, 『국민학교 국어 읽기 2-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0
12. 최상수,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성문각, 1985